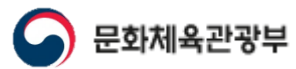


서울 국제 여성 영화제

I · SEÒUL · U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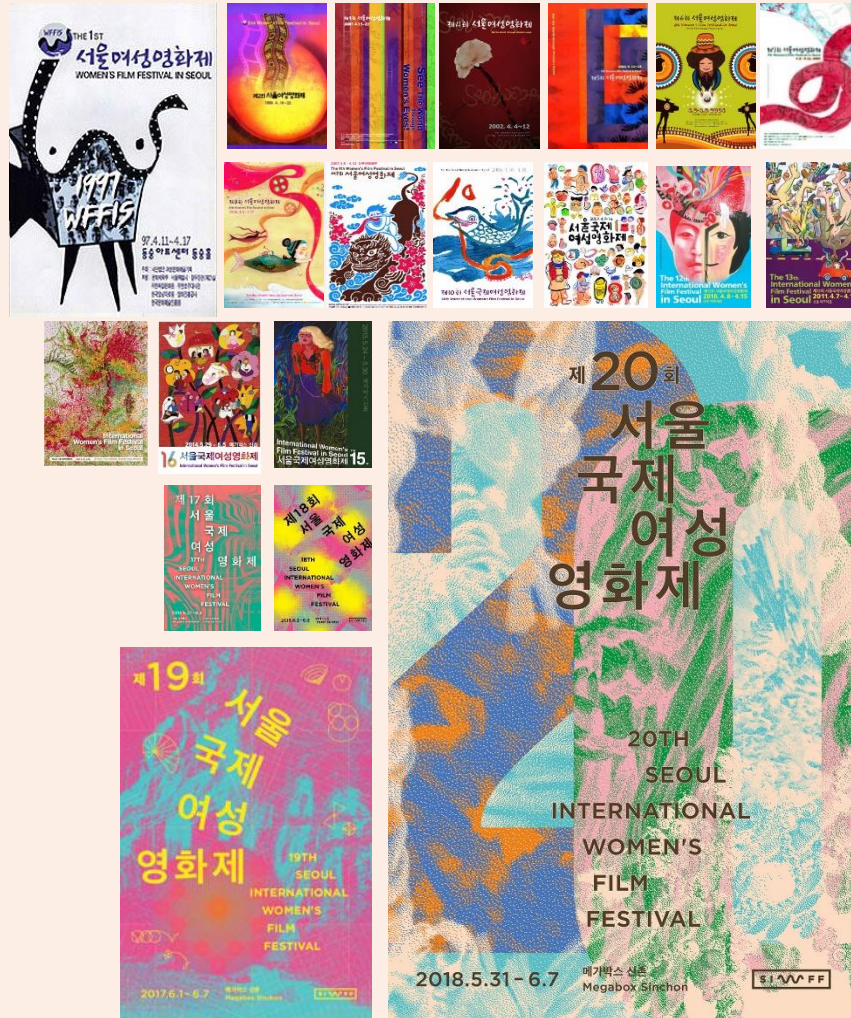
1997년 서울국제여성영화제를 시작할 때,
국내 여성감독의 수는 7명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사회 최초의 여성영화의 장으로서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수백 명의 여성감독을 배출하고,

영화 속의 여성캐릭터 다양화에 기여하였으며,
나아가 세계 여성영화 네트워크 형성을 주도해왔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성 평등 의식 변화와
어느덧 21회를 맞이하여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입니다.

1. 역사



제1회	1997.4.11-17	10개국 38편
제2회	1999.4.16-23	9개국 52편
제3회	2001.4.16-22	10개국 38편
제4회	2002.4.4-12	21개국 80편
제5회	2003.4.11-18	19개국 117편
제6회	2004.4.2-9	20개국 73편
제7회	2005.4.8-15	27개국 86편
제8회	2006.4.6.-14	33개국 96편
제9회	2007.4.5-12	29개국 100편
제10회	2008.4.10-18	30개국 140편
제11회	2009.4.9-16	23개국 105편
제12회	2010.4.8-15	27개국 102편
제13회	2011.4.7-14	30개국 115편
제14회	2012.4.19-26	30개국 120편
제15회	2013.5.24-30	28개국 110편
제16회	2014.5.29-6.5	30개국 99편
제17회	2015.5.27-6.3	37개국 111편
제18회	2016.6.2-6.8	27개국 118편
제19회	2017.6.1-6.7	37개국 107편
제20회	2018.5.31-6.7	36개국 147편

2. 제21회 영화제 개요

행사명	제2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The 21st Seoul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기간	2019년 8월 29일(목)- 9월 5일(목) / 총 8일간
장소	문화비축기지,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7개관
성격	비경쟁 국제영화제 (일부 경쟁부문)
주최	(사)서울국제여성영화제
후원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캐치프레이즈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
	"See the World through Women's Eyes"



[문화비축기지와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3. 제21회 영화제 의미

국제적 영향력 Global Influence

- 성평등가치를 지향하는 국제영화제
-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여성영화제
- 13개 섹션, 30여 개국, 130여 편 영화 상영 (예정)
- 국제장편경쟁, 한국장편경쟁, 아시아단편경선 등

관객 만족도 Guest Satisfaction

- 유일하게 평균 좌석 점유율 85%를 상회하는 국제영화제
- 4년 연속 고객만족도 최우수 영화제

영화사적 화제성 Remarkable Events

- 한국영화100주년 x 바리터 30주년 기념 섹션
- 피치앤캐치 10주년 기념 프로젝트
- 아네스바르다 회고전 기획 섹션
- 한·폴 30주년 특별전 기획 섹션

4. 영화제 가치

세계 최고의 국제 여성영화제

- 성평등가치를 지향하는 국제영화제
-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영화제
- 전세계 여성영화인 네트워크 확보

여성 영화 인력 배출의 산실

- 20년간 수백명의 여성영화 감독 및 PD 발굴
- 여성 제작 지원을 통해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
- 시네페미니즘 학교 등을 통한 여성관객 확산

여성 · 영화 · 축제

- 영화제 그 이상을 지향하는 대중적 축제
- 영화를 통한 여성 임파워링 역할
- 해당 역량을 사회로 환원하는 축제

“여성있는민주주의” 사회에 기여

- 성평등지수가 현재 민주주의 척도의 핵심
- 영화를 통한 성인지감수성 확산에 기여
- 여성영화를 통한 성평등 교육 콘텐츠 기획 및 보급

5-1. 성과 여성영화인력 배출



제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단편영화 및 비디오 경선 최우수상 <있다>

박찬욱 감독

<질투는 나의 힘> <파주>



제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단편영화 및 비디오 경선 최우수상 <도형일기>

정재은 감독

<고양이를 부탁해> <말하는 건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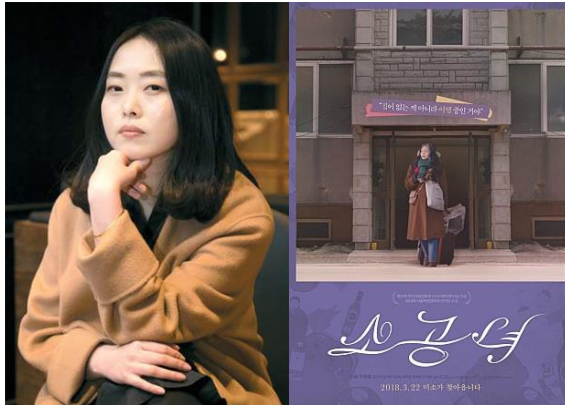
5-1. 성과 여성영화인력 배출



제6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아시아 단편영화 경선 최우수상/관객상 <잘돼가? 무엇이든>

이경미 감독

<미쓰 홍당무> <비밀은 없다>



제1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아시아 단편영화 경선 우수상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전고운 감독

<소공녀>

5-1. 성과 여성영화인력 배출



제15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피치&캐치 극영화 부문

김정숙 프로듀서
<차이나타운>



제19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옥랑문화상

김보람 감독
<피의 연대기>



제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아시아 단편경선 우수상 <사이코 드라마>

윤재연 감독
<여고괴담3> <요가학원>



제1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피치&캐치 극영화 부문

김창아 프로듀서
<미쓰GO>

5-1. 성과 여성영화인력 배출



제1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피치&캐치 극영화 부문

홍이연정 프로듀서

<분노의 윤리학>



제1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피치&캐치 극영화 아트레온상, 관객인기상

김희정 감독

<청포도 사탕>



제1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피치&캐치 극영화 메가박스상

김보라 감독

<벌새>



제18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NAWFF 어워드 2016

박소현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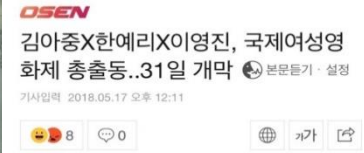
<야근 대신 뜨개질>

5-2. 성과 언론보도



서울국제여성영화제

- 전세계 여성의 시선...36개국 147편 상영, 제20회 서울국제영화제
 ... 2018.05.26 세계일보
- 여성의 몸.영화산업 성평등 논한다...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램
 ... 2018.05.29 여성신문
-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로 시작해 20주년 맞은 서울 국제여성영화제
 ... 2018.05.30 경향신문
- 성년 맞이한 여성영화제, '미투' 너머 성평등을 꿈꾸다
 ... 2018.06.01 노컷뉴스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스크린에 여성이 있다"
 ... 2018.06.06 KBS연예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예매관객수 30% 급등...여성영화 향한 열기 최고조
 ... 2018.06.07 뷰어스
- 여성영화제 폐막..."포기하거나 멈추지 말고 영화 만들기를"
 ... 2018.06.08 노컷뉴스
- 제2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폐막식 성료, 풍성한 볼거리로 축제의 장
 ... 2018.06.11 아시아뉴스통신



[OSEN=박관석 기자] 제2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2018년 5월 31일~6월 7일/집행위원장 김선아)에서 3대 페미니스타로 선정된 배우 이영진이 다채로운 활동을 예고해 화제를 모은 데 이어, 1대 페미니스타이자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명예 집행위원으로 위촉된 김아중과 2대 페미니스타로 활약해온 한예리까지 역대 페미니스타가 총출동해 관객들과 특별한 만남을 갖는다.

'여성들이여 스크린을 점령하라'

어느덧 스무 살 맞은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핵심은 '미투'와 '여성'



5-2. 성과 언론보도 | 홍보대사



제1·2대 페미니스타
김아중



제3대 페미니스타
한예리



제4대 페미니스타
이영진



제5대 페미니스타
김민정

5-3. 성과 국제 교류 프로그램 및 행사

글로벌 여성영화제 네트워크의 중심,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활발한 국제 교류 행사로 세계 여성 영화인의 연대 활성화에 기여 /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로 국내 여성 영화인들의 해외 진출 도모



2018년 20회

**필름 페미니즘의 새로운 도전:
응시에서 몸으로, 그리고
차이의 즐거움을 향해**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20주년을 기념한 국제컨퍼런스.
- 캐나다, 대만, 한국 등 전세계의 씨네페미니스트들이 모여 영화 이론의 현제에 대해 논하는 자리
- 로라마르크 교수(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로잔나 몰 교수(종코디아대학), 린슈이 교수(대만교통대학교) 참석.

* 주한캐나다대사관 지원
*주한국대만대표부 지원

2016년 18회 프랑스 여성영화 120년, 1896-2016

- 세계 최초 여성감독 알리스 기-블라쉴부터 2000년대 뉴 제너레이션까지 프랑스 여성영화의 120년사.
- 쥘비에브 셸리에 (보르도 몽테뉴대학 영화학과 교수), 재키 뷔에 (그레떼이유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자클린 코 감독 (<내 머리 속에 숨겨둔 당신> 연출) 참석.
- 동명의 프랑스 특별 섹션 프랑스 여성 영화 27편상영

* 한-불 상호교류의 해 (2015-2016) 지원사업

2015년 17회 스웨덴 여성영화의 평등한 힘

- 세계적으로 영화산업의 성별 불평등 문제는 심각한 수준. 이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스웨덴 영화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영화산업의 성평등 정책과 문화를 들어보는 기회 마련.
- 안나 세르네르(스웨덴영화진흥위원장), 심재명(명필름 대표)등 스웨덴과 한국의 주요 영화인사 및 여성영화인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 진행.

* 주한스웨덴대사관 지원

2014년 16회 “카메라 앞의 삶-리.액션하는 여배우, 가가와 교코”

- 배우 가가와 교코, 문소리와 함께 스페셜 토크를 통해 여배우의 관점에서 영화 읽기의 재미 선사
- 다수의 남성 인물들 사이에서 종종 유일한 여성인물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여배우들에게 주어지는 ‘리액션’이라는 과제를 독자적인 영역으로 해석하여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주제적 특성에 부합되는 측면 부각.

* 일본국제교류기금 지원

2012년 14회 멕시코 여성영화, 역사와 새로운 흐름

- 과나후아토국제영화제 관계자 초청, 멕시코 여성영화의 과거와 현주소 논의.
- 새로운 주제의식과 미학으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의 신진 여성감독들의 최근 경향에 대한 대담
- 멕시코 영화계 대모인 마리아 노바로 감독의 신작 소개.
- 남미 특유의 미술적 리얼리즘과 멕시코의 정치사회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작품 등 멕시코화 제작 한국 최초로 소개.

* 주한멕시코대사관 지원

6. 상시 사업



시우피안

시우피안(SIWFFIAN)은 서울국제여성영화제를 지지하는 후원회원이자 관객으로,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펼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기획 행사 등에 가장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을 함.



아카이브 보라

<http://archivebora.or.kr/>

매년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상영한 화제작을 엄선하여 아카이빙 작업을 하는 역할 대중문화, 몸, 환경, 노동, 섹슈얼리티 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및 여성 문제를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작품 총 337편 소장 및 대여 활동.
(장편 121편, 단편 216편, 2018년 12월 기준)

씨네 페미니즘 학교(강좌)



- <씨네 페미니즘 학교>는 매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대중 강좌, 집중 강좌, 열린 강좌 등 다양한 참여가 가능한 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 강좌당 8~10회의 강의가 진행되며, 매 강의 시 여성영화 및 대중 미디어를 활용하여 강연 및 토론을 한다.
- 씨네 페미니즘 학교는 여성영화에 관심들을 연결하는 공통의 주제와 공감의 장을 마련하여 여성주의 담론 형성과 발전을 꾀하고, 참여자들이 대중문화를 비판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성평등 문화의 주체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7. 조직 구성

이사장	김 은 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조직위원장	변 재 란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교수
집행위원장	박 광 수	前) 신씨네 총괄본부장
부집행위원장 프로그램 선정 위원장	권 은 선	중부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영화학 박사
집행위원	변 영 주	영화감독 <화차><밀애>
	정 재 은	영화감독 <고양이를 부탁해> <말하는 건축가> 등
	이 숙 경	영화감독 <간지들의 하루><어떤 개인 날> 등
	김 영	미루픽처스 대표
	추 상 미	영화배우, 감독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이 병 원	영화프로듀서
프로그램머	배 주 연	서강대학교 HK 교수, 영화학박사
	권 은 혜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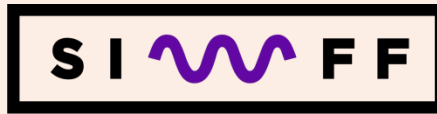
제20회 서울여성국제영화제 현장스케치



SIMWFF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감사합니다.



서울 국제 여성 영화제